

어린이책 들춰보기

고구려 이야기

민영 지음

창작과비평사 / A5신 / 224면 / 2500원

고구려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설화를 곁들여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책.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을지문덕·양만춘장군과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유리왕이 불렀다는 황조가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등 고구려의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를 쉽게 공부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했다.

요리사의 입맛

김병규 지음

백수사 / A5신 / 154면 / 2700원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14편의 동화를 담은 창작동화집. 표제작인 「요리사의 입맛」은 입맛이 까다로운 임금님에게 소박한 음식상을 차려 임금님의 사치와 향락을 지적하는 요리장과 꼬마 요리사의 이야기. 다른 요리사들이 임금님께 계속 아무만을 일삼아 임금님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 국난을 맞게 되자, 임금님은 요리장과 꼬마요리사의 뜻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어린이의 속삭임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엄마의 목소리

김상삼 지음

아동교육문화연구회 / A5신 / 198면 / 2700원

시골에서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용찬이가 엄마를 찾은 장편동화. 어딘가에 살아 계신 엄마를 만나기 위해 야구선수가 된 용찬은 시합때면 늘 엄마를 찾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 자기 어깨의 검은 점을 보이기 위해 웃옷을 벗고 경기를 하는데 결국 엄마를 만나기는 하지만, 부잣집에서 살고 있는 재가한 엄마에 대한 허전함을 느끼면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온다.

가우똥이야기

정원식 지음

예림당 / A5신 / 92면 / 2500원

독일,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모아 묶은 책. ‘코끼리의 코도 처음엔 짧았다구’ ‘닭이 흠을 파헤치는 것은 어째서?’ ‘대머리독수리가 생겨난 까닭’ ‘지네는 웬 다리가 그리도 많을까?’ 등의 가상적인 이야기 9편을 통해 동물들의 생김의 특성이나 습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다. 동물의 표정을 익살스럽게 그린 컬러화보를 실고 있어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생각하는 무지개

박송, 송명호 지음

대웅출판사 / A5신 / 94면 / 2500원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듣고 그리기를 지도하는 그림동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동화들을 책으로 엮었다. 전래동화, 창작동화, 세계명작동화 15편이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실렸는데, 아이들의 착한 심성을 길러주는 내용이다. 지면을 분할한 특이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며 숨은그림찾기가 있어 즐겁게 볼 수 있다. 책을 읽은 뒤 그림을 그려 보내면 상품을 탈 수 있는 응모권이 곁들여져 있다.

오복이네 괴짜들(전·후편)

최승환 지음

현암사 / A5신 / 각208편 / 각2500원

「5학년3반 청개구리」로 친숙한 작가 최승환씨의 새 명랑장편소설. 오복이네 3층집에 살고 있는 괴짜들이 자아내는 웃음과 우정을 재미있게 엮었다. 오복이네 집은 가장 나이 어린 정오복, 만화를 많이 읽어 별명이 「만도사」인 박동준, 왕눈이, 강한국, 닭다리를 즐겨 먹는 차영아, 너구리를 좋아하는 장바위 등 괴짜들만 모여 살고 있다. 오복이네 집은 언제나 말쑥도 많고 웃음이 떠나갈 새가 없이 오손도손 즐겁다.

라둠의 어머니 쿼리

소중애 엮음

대원사 / A5신 / 214면 / 2500원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물리학자 마리아 스클로드프스카의 일생을 적은 전기. 러시아 통치하에 있던 폴란드에서 태어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하여 라둠을 발견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신혼여행은 자전거로 떠났으며, 돌중한 사람만 남은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만큼 남편 쿼리를 사랑한 것도 볼 수 있다. 쿼리부인이 썼던 편지들을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도 잘 그려져 있다.

빛을 남긴 위인들

이준구, 송명호 지음

대웅출판사 / A5신 / 190면 / 2000원

KBS 어린이 프로 ‘위인교실’에서 방송되었던 위인들의 전기를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엮은 책. 광개토왕, 선덕여왕, 김홍도, 전봉준 등 12인의 우리나라 위인들과 공자, 갈릴레이, 로댕, 슈바이처 등 13인의 세계적인 위인들의 어린 시절 일화를 적었다. 또한 위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위인들의 지혜와 총명함만이 아니라 모자라는 점들도 지적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친근감을 함께 주고 있다.

프랑스 설화 여우이야기

베에르 드 보몽 엮음 / 윤세홍 옮김
 겹지사 / A5신 / 94면 / 2500원

동물의 세계를 빌어 인간사회를 풍자한 프랑스의 중세설화이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우가 펼치는 모험담식으로 재미있게 엮여져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우직한 듯하면서 미련한 늑대가 늘 여우의 꾀에 넘어가는 상대자로 등장하고 있다. 등장하는 갖가지 동물 하나하나가 인간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인간의 윤리의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피돌이 만만세!

이준연 지음
 서강출판사 / A5신 / 180면 / 2000원

피를 써서 좋은 일을 한 전래동화 속의 피돌이의 이야기를 원형은 살린채로 재미있게 고쳐 엮은 책. 9편의 동화들에서 피돌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탐욕스런 양반들을 놀려주고 나쁜 버릇도 고쳐준다. 어려운 일에 닥쳐서는 절망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용기도 보여주고 있다. 본문중에 쉬운 한자어를 괄호 속에 삽입하고 부록으로 국민학생들이 읽어야 할 한자를 수록하였다.

행복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있어요

문재욱 엮음
 남도문화사 / A5신 / 278면 / 2500원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도덕적 덕목을 내용으로 하는 교훈적인 동화만을 골라 묶은 책.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나 재주를 다룬 이야기편, 정직과 희생, 인내 등의 훌륭한 인격을 키워주는 덕목을 제시한 이야기편, 버려야 할 나쁜 자세, 욕심을 경계하는 이야기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래동화, 우화, 외국동화를 두루 망라하여 어린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교육적 효과가 큰 동화 64편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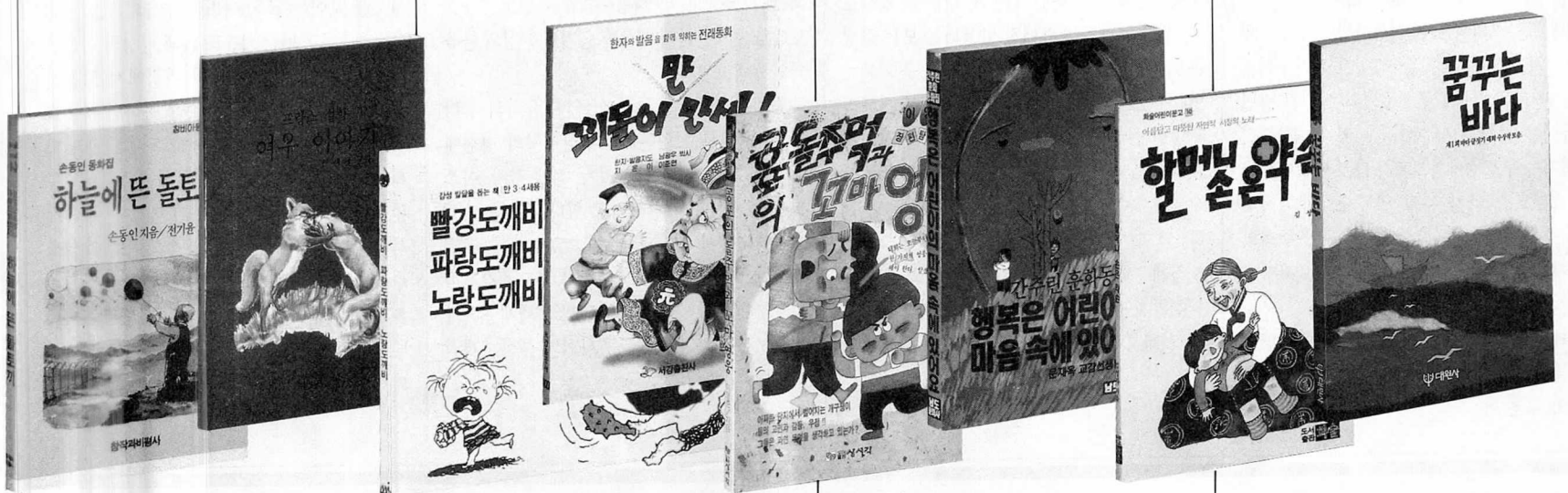
꿈꾸는 바다

편집부 엮음
 대원사 / A5신 / 294면 / 2000원

동원산업과 서울 YMCA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바다글짓기대회' 입상작을 가려 모은 책.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들이 바다를 주제로 쓴 시·소설 등 154편을 실고 있다. 바다에 대해 어린이들이 갖는 꿈과 그리움, 바닷가에서의 추억과 동경이 어린이 특유의 감성으로 솔직하게 펼쳐지고 있다.

바닷속 깊이 깊이 누가 살길래
 파도는 모래밭을 자꾸 씻는다.

-금상 「바다친구」중



하늘에 뜬 돌토끼

손동인 지음
 창작과비평사 / A5신 / 208면 / 2500원

중편 「하늘에 뜬 돌토끼」와 단편 12편을 수록한 창작동화집. 「하늘에 뜬 돌토끼」에서 시골 할아버지댁에 놀러간 민이는 할아버지로부터 6·25때의 경험을 듣게 된다. 돌토끼를 좋아 했던 세호라는 소년은 전쟁중에 부모를 잃고 죽게 된다. 민이의 할아버지는 어른들이 벌인 전쟁 때문에 희생된 소년에게 대해 마음 아파하며 기억을 떠올린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다.

빨강도깨비, 파랑도깨비, 노랑도깨비

윤구병 지음
 웅진출판 / A5 / 24면 / 2000원

‘올챙이 그림책’(전5권)시리즈의 하나로 만3~4세 아이들의 색채감각을 개발해 주는 책. 할머니댁에 심부름을 가는 길에서 도깨비를 만난 송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색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색채배합의 원리를 일깨워준다. 예컨대, 빨간색에는 어떤 사물이 있는지, 빨강과 파랑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예쁜 그림이 담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저절로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포의 돌주먹과 꼬마 영웅

이영준 지음
 상서각 / A5신 / 202면 / 2500원

키가 작아서 ‘꼬마 영웅’이라 불리는 주인공 김영웅은 집이 이사를 가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 공부를 잘하는 착실한 이수재와 친하게 지내는 환편, 돌주먹으로부터 영웅은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을 강요당한다. 돌주먹은 수재가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씌워 비밀로 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한다. 돌주먹의 괴롭힘 때문에 공부와 행동이 엉망이 됐던 영웅을 수재는 우정으로써 도와준다. 돌주먹도 아버지의 희생적인 죽음에 회개하고 착한 소년이 된다.

할머니 손은 약손

김성자 지음
 화술 / A5신 / 106면 / 1800원

학교공부로 바쁜 어린이들의 모습과 흠뻑새 물씬 풍기는 전원생활을 서정적으로 그린 동시집.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 할머니는 호호 호호 / 입김 불어 주시고

욕심껏 먹다가 / 내 배 아프면 / 쓱쓱 쓱쓱 / 약손 문지르시고

엄마는 / 약국에서 하얀 알약 소화제

나는 할머니 약손이 좋아 / 가슴까지 따뜻한 입김이 좋아